

맑고 향기롭게,
육영수 생가

이진영

맑고 향기롭게, 육영수 생가

이진영

맑고 향기롭게,
육영수 생가

이진영



맑고 향기롭게, 육영수 생가

이진영



작가노트

이진영

생애 첫 개인전을 마치면서,
두 번째 개인전을 해낼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생각한 곳이 육영수 생가이다.

육영수 생가는 ‘교동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향교가 있어 마을 지명이 교동리였기 때문이다. ‘교동집’은 육여사가 나고 자란 집으로 조선 중기, 1600년대 김정승이 처음 지어 살고 이후 송정승, 민정승 등 삼정승이 살았던 집으로 알려져 있다.‘삼정승집’이라 불리던 이 집은 육 여사가 태어나기 전인 1918년 부친 육종관이 민정승의 자손 민영기에게 사들여 고쳐 지은 조선 후기 충청도 반가의 전형적인 집이다. 육영수 생가는 1974년 육 여사 서거 이후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허물어진 채 생가터만 남았다가 복원을 마치고 2011년 5월부터 일반에게 공개됐다.

개인적으로는 선친의 외숙모 댁이라는 인연이 있는 곳이지만, (사)옥천향토사연구회 회장을 맡고서야 회원들과 방문한 이력이 전부다. 늘 지나치며 자주 보고 그 생가 앞, 연밭에는 몇 번 출사를 가기도 했지만 정작 생가에 들어가 보진 못했다.

무엇이 이토록 나를 막아서고 있는가?
비밀에 싸인 성처럼 육영수 생가를 여행하기에는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아무리 급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다음 세계에 들어갈 수 없듯이 내 마음에도 금기의 문이 있으리라. 늘 가늠할 수 없는 맑은 마음과 향기로운 품격은 흠모할 마음이 서지 않는 한 다가설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담아낼 수 없듯이 맑고 향기로운 육영수여사의 삶이 태동한 생가는 더더욱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으리라.

이제야 사진을 알고 스스로없이 육영수 생가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사진을 통해 내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다. 비울수록 커지고 다가갈수록 미지의 문들이 열리는 신비한 세계를 여행하는 나를 발견한다.

삶에 지친 내 영혼과 육체를 달래고 치유하면서, 육영수 생가를 사진에 담았다.
처음 생가를 사진으로 담는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막연해서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한옥에 대한 책도 탐독하며 한옥의 구조와 건축적인 의미들과 그 안에 스며있는 유, 불, 도의 철학적 배경들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건축물 역시 사진과 마찬가지로 빛을 공간에 담는 예술임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1년 정도 시간이 날 때마다 출사하면서 고즈넉한 한옥의 분위기를 담고 싶었는데, 생가 관리하는 분들이 너무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진땀을 주면서 사진 좀 담을 수 있게 청소를 며칠 만이라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올해는 마침 육영수여사 탄생, 100주년 되는 해이다.
늘 영부인으로서의 품격과 따뜻한 성품으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분이다.
유일한 비교 대상이 신사임당임을 생각해 보면 더욱 자명한 사실이리라.

독일 국민 방문시,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품에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린 일화와 소록도 방문 때, 한센병 환자가 수줍어하며 준 사과를 서슴없이 받아먹은 일화, 그리고 1974년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기워진 속치마를 보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눈물을 흘린 일화 등 참으로 많은 일화가 국민 가슴속에 먹먹하게 메아리쳐 오고 그 메아리는 돌고 돌아 잊을만하면 다시 울리곤 한다.

오늘도 생가를 찾는 이들이 많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육영수 생가를 찍고 있는가?
끝없이 자문하며 조심스레 옥천의 미래 유산을 기록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그동안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향토사학자로서 옥천향토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논문으로서 기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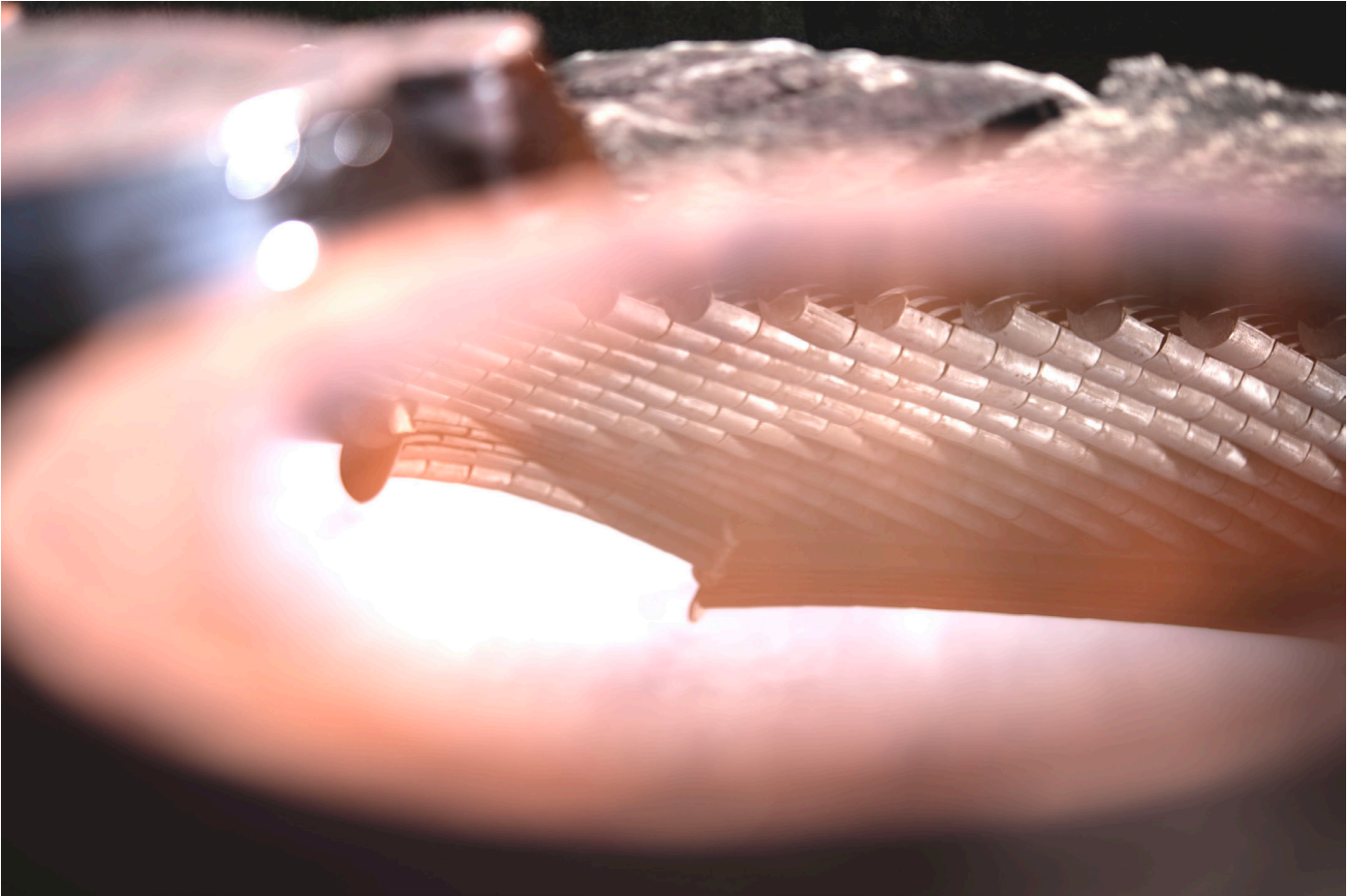
그러나 사진에 입문하면서 사진이 글 못지않은 기록적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진 공부를 할수록 인문학적 사고도 더 깊어지는 것 같다. 무엇보다 그동안 옥천의 미래유산을 기록한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볼 생각이다.

그 첫 번째로 육영수 생가를 기록한다.

맑고 향기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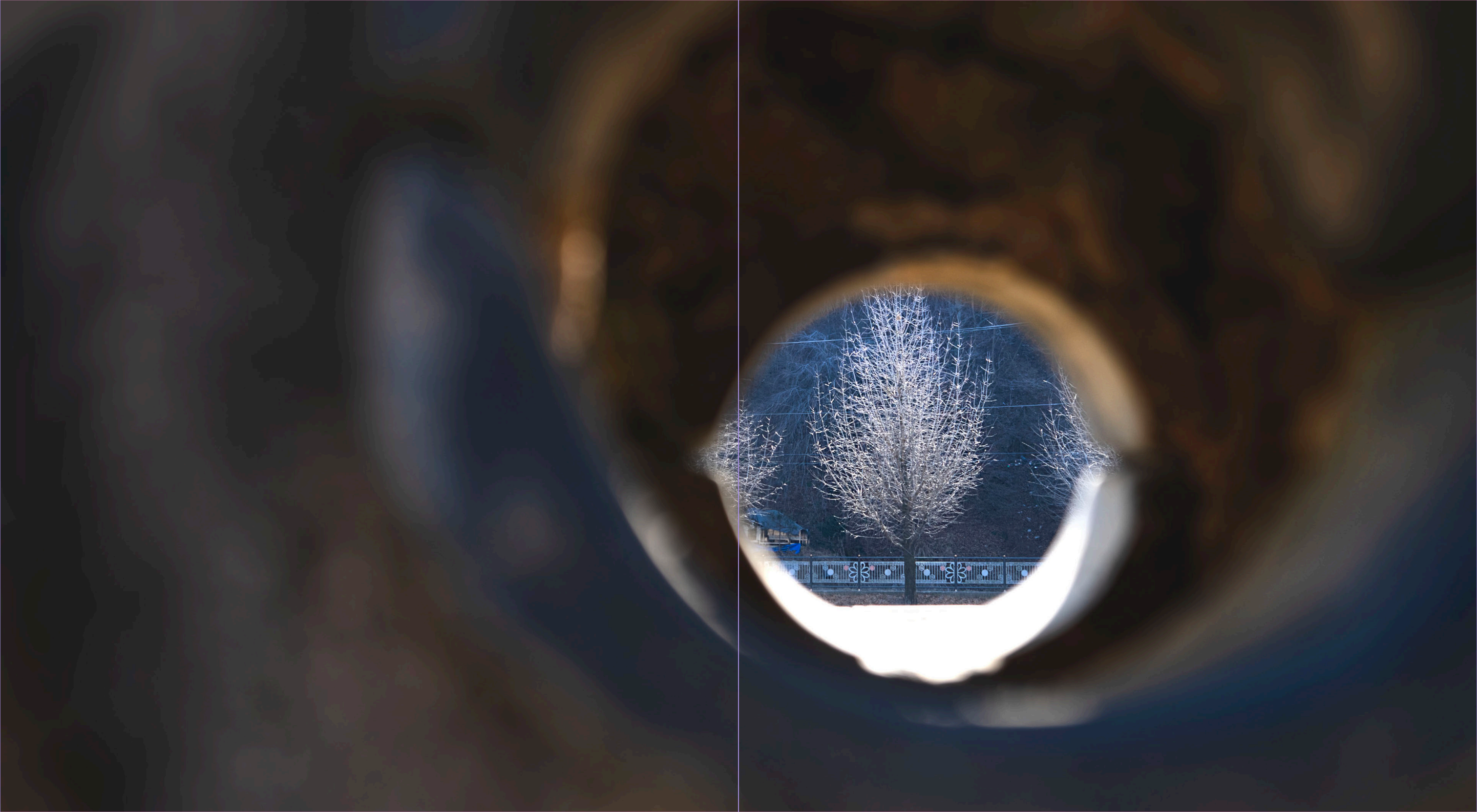
“바위”











이진영

1963년
옥천 금구리 출생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대학원 문학석사

現, 명륜당서점 대표
現, 동그라미사진공작소 대표
前, (사)옥천향토사연구회 회장

개인전

2025 맑고 향기롭게, 육영수 생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전시실
2024 금빛천리,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전시실

단체전

2025 제3회 도시기억 아카이브 사진제, 충주문화회관
2024 사진충북, 청주 시립미술관
2024 대청호 수변마을 아카이빙, 옥천전통문화체험관
2023 빛 그리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문화기획

2025 지용제 사직 기록
2025 사진옥천 추진위원장
2024 PRE 옥천사진제 추진위원장
2001~2002년 옥천군 어린이날 큰잔치
2004 옥천 동화읽는어른모임 창립

맑고 향기롭게, 육영수 생가

이진영

옥천진통문화체험관

2025년 5월 20일 - 5월 25일

* 도록에 수록된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이진영에게 있으며, 별도 사진 사용을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